

COVID-19 기간 동안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생의 취업 스트레스 경험

오경숙*, 이정아**, 김영숙***

*.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예자람어린이집

e-mail:geb1568@daum.net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d Course Student's Stress to Get a job during Period of COVID-19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Yejaram Child Care Center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전문대학의 전공심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K전문대학 전공심화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7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2달동안 심층면담을 통하여 코로나 19발생 이후 취업스트레스 경험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콜라찌(1978)의 현상학적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이 잘 되지 불안함', '코로나 시기 대학생하이원망스러움', '사회현상에 대한 불안·낙관',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신체적 불편감이 나타남 등 총 5개의 주제군으로 나눌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를 부정적 그리고 불안함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1. 서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관심은 그 무엇보다도 취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1]가 신입·경력직 구직자 2천980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3%가 '취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답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학업,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기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인맥을 쌓지 못함', '비대면 대학생 활로 소통기회 부족', '전공에 대한 이해부족', '실습부족에 따른 실무능력을 쌓지 못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대학생활은 물론 졸업 이후 취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장기간 이어진 고용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은 취업 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기휴학'이나 '졸업 유예', '도피성 진학' 등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스트레스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넘어 폭력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3]이 2019년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1345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8%가 취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언제 취업될 줄 모르는 불안감'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펙', '부모나 친척 등 지인들의 기대감' 등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큰 이유로 들었다. 또한 취업을 생각하면 이유 없이 계속 우울하거나 두통, 만성피로, 소화불량 및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대인기피증이나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논문들에서도 취업스트레스는 우울[3] 및 자아존중감[4]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5],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대학의 취업스트레스 원인이나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조사연구 또는 중재연구로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규 졸업을 하고 전공심화라고 하는 학교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이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19의 중심에서 대학생활을 겪었던 학

생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전공심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코로나19 상황이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2. 분석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K 대학교의 유아교육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 한 후, 최종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전공심화과정 학생 10명이다. 연구참여자는 3학년 졸업을 한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4학년(전공심화)에 재학중이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22세~26세로 평균 23.5세이다. 참여자의 기본사항은[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기본사항

번호	성별	취업희망 영역	담당하고 싶은 반	비대면 교과비용	실습이수
1	여	체육	만3세~5세		
2	여	유치원·어린이집	만4세		
3	여	유치원	만3세		보육실습 (6주)
4	여	유아관련 기관	만3세~4세		대면과 비대면
5	여	유치원	만3세~4세	1학년:5%	병행진행
6	여	유치원	만3세~5세	2학년:80%	
7	여	유아관련 기관	만3세	3학년:97%	심화과정: 0%
8	여	유치원·어린이집	만3세~5세		교육실습 (4주)
9	여	유치원·어린이집	만4세~5세		대면진행
10	남	사무직	없음		

학생들은 2학년과 3학년시기에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시기로 유아교육 실습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과 보육실습을 대면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 실습한 학생들이다. 참고 사항으로 온라인 대체 실습이란 해당 대학에서 수행한 진행한 실습으로, 초기에는 온라인으로 순회지도(실습 오리엔테이션)를 실시하고 주중에는 매일 교수매체연구 온라인으로 시청 후 자가 연습하며, 마지막 실습 종료 직전에는 온라인(실시간)으로 실습간담회를 실시한 후, 실습일지와 소감문 등을 학교 온라인 LMS로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2 윤리적 고려

먼저 K 대학 유아교육 전공심화과정 학생들 중 최종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1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심층 인터뷰 자료는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종료 시에는 모든 자료를 폐기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 동의를 중단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3 자료수집

유아교육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경험의 의미와 구조가 완성될 시점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반복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2년 3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약2개월이 소요되었다. 코로나가 학습이나 취업에 미친 영향과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0명을 심층 비구조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면담시간은 1명당 평균 50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수료수집과 동시에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자세하게 파악하였고, 답변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복질문을 통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대상자들에게는 1만원 이내의 상품보상을 제공하였다.

2.4 자료분석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6]가 설명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총 6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는 수집된 심층 면담 내용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반적 느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2단계는 필사한 자료 중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진술문으로부터 도출된 문장과 구절로부터 의미가 있는 문장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 진술하였다. 3단계는 추출된 문장이나 구절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4단계는 연구자가 구성한 느낌과 의미들을 비교해가면서 ‘주제’와 ‘하위주제’로 조직하였다. 5단계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최종진술을 기술하였고, 6단계에서는 기술된 주제 모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에 참여했던 참여자와의 추가 면담을 통해 본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현상학적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명에게도 자문을 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범주의 속성을 명확히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취업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은 총 82개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11개의 개념 기술과 5개의 주제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교육 전공심화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주제와 하위

개념은[표 2]와 같다.

[표 2] 주제와 하위개념

주제모음	하위개념
취업에 대한 불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 잘 안될 것 같고, 취업을 하고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 모의수업 부재로 전공에 부족함이 많고 자신감이 떨어짐
코로나시기 대학생살이 원망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수업에 정신이 어수선하고 불편함 • 온라인 실습 등 실습부족에 따른 불안감 • 학교행사나 사회활동 부족의 아쉬움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 또는 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현장 아이들이 줄고 취업을 어렵다고 해 걱정 • 저 출산시대지만 아이들은 있고 교사도 필요할테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
주변의기대가 부담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이다 보니 가족이나 친지의 기대가 더욱 신경이 쓰임
신체적·정신적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 가슴이 답답함과 마음의 복잡함 •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룸

3.1 취업에 대한 불안함

전반적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부족함으로 자신감 결여, 이로 인한 취업이 잘 안될 것 같고 취업을 하였어도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취업...그냥 막연해요. 과연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설명 취업이 된다 해도 지금 나의 실력으로 담임을 잘 할 수 있을까? 유아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취업이 안될 것 같아서 전공심화를 선택했는데...”(참여자 1. 220320).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곧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를 다니는 3년에서 2년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전공에서도 모의수업 진행이 안 되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수업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비대면 수업 후에 집중이 안되어서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낮아졌구요.”(참여자 3. 220407).

3.2 코로나시기 대학생살이 원망스러움

현재 전공심화 학생들은 2020년 초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2~3학년의 90%이상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고, 4주간의 교육 실습 외에 사전·사후 실습이 빈약하였다, 6주간의 보육실습을 교내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실습한 학생들이므로 학생들은 보육실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본인 재학 중에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선후배 모임이나 선배들과의 취업정보 제공의 시간이 가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공부량도 많아지는 것 같고, 부여되는 과제도 폭발할 것 같고...지금이야 LMS로 통일되었지

만 처음에는 교수님마다 수업을 올려놓는 사이트가 달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과제와 수업의 양도 부담스러웠고”(참여자10. 220421). “보육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상이나 교재로 배우다보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불안한 것 도 있었어요”(참여자4. 220428)

“2학년 보육실습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상한데, 3학년 교육실습도 사전, 사후 실습이 어려웠고 실습 또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너무 속상했어요.(참여자6. 220421).

“하반기에 모의면접이나 선배특강이 있어서 취업한 선배들에게 취업에 관련한 정보나 면접 질문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배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보니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면접은 잘 치룰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참여자9. 220407).

3.3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 또는 낙관

학생들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원생 수가 줄면서 유아교육기관이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것, 이로 인한 취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것 이라는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 출생률은 저하되지만 그래도 출생을 이루어지니까 유아교사는 꼭 필요함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저는 어린이집 취업은 전혀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많은 수의 유치원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배들도 유치원 취업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사정이 이러하다하니 취업을 못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 취업도 고민하고 있어요.(대부분 동조의 끄덕임, 참여자 2,8,9. 220420).

“저는 꼭 유치원으로 취업할거예요. 그동안 교육봉사나 실습을 통해서 유치원과 관계를 잘 맺어왔고, 그리고 아직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있고 교사는 꼭 필요 할 테니까요(참여자 3번.220420)

3.4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학생들은 무조건 취업이 될 것이라는 이라는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집에서 큰 딸이라는 이유로 빨리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부모님은 졸업 후 제가 당연히 취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셨나 봐요. 학교를 1년 더 다니겠다는 말에 약간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제가 큰 딸이고 동생들의 등록금도 있다 보니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틈틈이 시간제 교사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참여자 8번, 220506).

3.5 신체적 불편

학생 중 취업을 생각하면 두통과 소화불량,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을 못이루는 등 수면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취업 준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한 듯 큰 숨을 몰아쉬는 등의 정신 신체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저는 남학생이라 전공 관련 취업이 막막해서 전공심화를 하

고 있지만 가끔 취업을 한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친구들의 전화를 받은 날에는 유난히 잠이 안와요.”(참여자10. 220421)
 “작년에 모의면접에 참여 한 적이 있었어요. 면접을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요. 위염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구요. 그 날도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하긴 하는데 면접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참여자1. 22032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취업 스트레스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취업 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힌 조미경[7]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하여 유아교육현장의 취업 현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나타난 심리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시기 대학생활이 원망스러움’을 볼 때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비대면이나 또는 축소, 취소됨으로 인해 취업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음이 반영된 심리적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진로 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8]와 맥을 같이한다. 즉, 참여 학생들은 코로나 19 상황이 취업을 방해하는 진로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연상에 대한 우려 또는 낙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저 출산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취업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나마 출산을 이어지고 교사는 필요한 상황이니 다른 직업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는 심리적 위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변의 기대가 비교가 부담스러움’은 취업 스트레스가 학습이나 자신의 상황 때문에 받는 부담보다 자신의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생각과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9].

참여자들의 취업 스트레스 경험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두통, 불면, 현기증, 소화불량 등의 정신 신체화 증상이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불안함,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함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학생들의 ‘코로나19 이후 취업스트레스 경험의 의미’는 ‘부정적이며 불안함’ 그 자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취업 진로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유행 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취업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변수와 취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양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1] recruit(2021). <http://www.hkrecur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17>, ‘대학생 80.7%, 나는 코로나 학번으로 졸업이후가 걱정된다. 202.12.27
- [2]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mobile/search?>,
- [3] JOBKOREA, albamon. https://www.jobkorea.co.kr/good_job 취업준비 스트레스... '이유없이 계속 우울해' 2019.10.18
- [4] 윤우석 (2016).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gnew의 일반긴장 이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95-118.
- [5] 이경민, 이희찬 (2020). 취업준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외모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항공 서비스 전공과 타전공 간에 비교 효과 중심으로. 관광연구, 35(7), 63-84.
- [6]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 연구, 10(1), 417-435
- [7]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8] 조미경, 정현숙(2001). 일 전문대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 A/B성격 특성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7(2), 183-191.
- [9] 전찬열 (2013). 대학생의 진로 장벽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 연구, 20(1), 1-14.
- [10] 이해숙, 박경희, 송미정 (2015). 집단미술치료가 장애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343-364.